



총선 D-1 “숨은 부동산 잡아라” 마지막 지지 호소 ‘총력전’

선거 막판 부동산·무당층 공략 여부 최대 변수 전망
각 정당·후보, 집중유세 표심 잡기·투표 독려 주력
진보당, 북을 ‘올인’...조국, 오늘 광주 찾아 ‘세몰이’

제22대 총선이 이를 앞둔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와 야권 후보들이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지지 호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 지지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지 못한 부동산층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3·4면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각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와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부동산 공략을 바탕으로 본선거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관택 후보(광산갑)는 8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같은 당 민형배 후보, 이탄희 의원과 함께 합동 유세를 펼치는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 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민주당 정준호 후보(광주 북구갑)는 전날부터 9일 자정까지 72시간 총력 유세에 돌입했다. 주간에는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을 방문하고 야간에는 먹자골목 상가 투어와 24시간 편의점 등을 돌며 상가 주인과 야간 아르바이트

생들을 만나 마음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8명의 후보들도 이날 5·18 민주광장 앞에서 합동 유세를 갖고 “광주에서 국민의힘에 한 석이라도 준다면 광주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광주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서구을)도 이날 오전 4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 밤 늦게까지 유세와 상가 인사, 간담회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강 후보는 전날 오후 2시 유세 준비 중에 고열과 탈진 증세로 응급실을 다녀온 뒤 오후 4시부터 집중유세 현장으로 복귀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광주 북구을을 전락 선거구로 지정하고 ‘올인’하고 있는 진보당은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을 만나겠다는 각오로 새벽부터 자정까지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이어 9일에도 집중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광산을)는 이날 오후부터 신창동 우체국 사거리와 신원마을 아파트 사거리, 첨단 LC타워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후 보는 자신이 ‘호남의 마지막 불씨’라는 점을 앞세워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진·우편투표함 보관 상황점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 투표를 앞둔 8일 오후 박병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서구·북구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 보안 설비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김예리기자

민중당 안도걸 후보(동남을)는 9일 오후 8시 5·18민주광장에서 촛불 집중 유세를 펼친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과 광주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총력전으로 모든 선거운동원이 집결한 가운데 진행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광주를 찾아 세몰이에 나선다. 이날 오전 부산과 대구를 거쳐 오후 4시 총창로 광주우체국 사거리를 찾는 일이다. 조 대표는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에서 4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한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돌풍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 지 정치권과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부동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투표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실제 조국혁신당에 많은 지지를 보낼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회가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이어이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하한데다가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 또 “배정 절차가 끝나 각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아 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이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하한데다가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 또 “배정 절차가 끝나 각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의료대란 장기화...道, 중증환자 증가 단계별 대응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 ‘경계·심각’ 등 비상체계 가동 방침

의료계 집단행동이 2개월째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중증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8일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기능 축소에 따른 중증 환자 증가를 예상, 목포한국병원과 순천성가톨릭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단계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2022년 기준 전남대·조선대 병원 이용 중증 환자(월 270명) 중 10% 이상 이용 시 비상 부족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 단계를 ▲1단계 관심(현재) ▲2단계 주의(10% 증가) ▲3단계 경계(25% 증가) ▲4단계 심각(50% 증가)으로 나눠 환자 증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모니터링 결과, 경계 단계 돌입 시부터 대응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기 대책으로 일부 병상 기능을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에 대처하기 위해 병상 전환 비용(1병상 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중환자 급증으로 동·서부 전 권역 중환자실 부족 시 병상 확충 가능 의료기관을 발굴해 중환자실 설치 비

용(1병상 당 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계 단계부터 지방의료원의 숙련 간호 인력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시 파견하고 응급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료 격려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료진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축소에도 도민이 진료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2개월여간 비상진료 태세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의 중환자실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중앙집중식 환자 감시장치 설치 비용 각 3억원 씩을 지원했다. /김재정기자

순천만국가정원 또 ‘인기몰이’

재개장 일주일만에 21만명 방문 ‘핫플’ 재확인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콘셉트로 새단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이 재개장 첫 주에만 21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는 등 또 다시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순천시는 8일 “순천만국가정원에 주말에만 12만명의 입장객이 찾는 등 재개장 첫 주 관람객 21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관람객을 사로잡은 것은 우주선이 막 착륙한 듯한 ‘스페이스 브릿지’다. 175m의 다리 내부에는 관람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디어 연출로 곳곳이 ‘포토스팟’이 됐다.

스페이스 브릿지를 건너면 시원한 개방감으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5천평의 화훼 공간 ‘스페이스 허브’가 펼쳐진다. 개막식 당일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에니벤츠 페어리가 열렸던 이 곳은 전용 전망대까지 설치돼 국가정원의 새로운 메인 포인트로 급부상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관람객을 사로잡은 귀여운 스탬프 투어 ‘작은 정원사의 모험’, 춤추는 세포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듯한 ‘우미의 세포를 더무비’, 4D 입체 영상관과 인터티브 전시, 프로젝트 맵

핑이 있는 시크릿 어드벤처도 연일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인기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아심차에 도입한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더불어 화려한 사계절 화훼, 문화 행사로 더욱 다이나믹하고 아름다운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며 “순천을 방문해 ‘정원문화도시’를 느끼고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순천=정기기자

Today

사전투표 ‘홍보방송’ 왜 없었나? 6면
우학소·광주여대 ‘반려동물과’ 9면
상승세 LG·독오른 한화 넘어 16면

과학영재키움

모집기간 '24. 3. 26. ~ 4. 26. 교육기간 '24. 5. ~ 12.

신청자격

가. 초등과정(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

- ① 부(또는 모)와 학생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② 도내 소재 초등학교 3학년부턴 초등학교 5학년 재학생 또는 2013.1.1.~2015.12.31 기간에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나. 중등과정(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

- ① 부(또는 모)와 학생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② 도내 소재 초등학교 6학년부턴 중학교 1학년 재학생 또는 2011.1.1.~2012.12.31 기간에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신청방법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e)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061-285-9482

전라남도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